

● '2014 KEPIC-Week' 여수서 대단원의 막 내려



지난달 27일 진행된 '2014 KEPIC-Week' 개막식 모습

전력산업계 최대 행사인 'KEPIC-Week' 행사가 '해양의 도시' 여수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KEPIC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은 원자력·화력발전소, 송배전설비 등 전력산업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제조, 시공, 운전,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전력산업계 민간단체표준이다. 대한전기협회가 정부로부터 KEPIC의 개발 및 유지 전담기구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협회 조환익 회장은 '2014 KEPIC-Week' 행사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KEPIC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연백 원전산업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전기협회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표준을 개발·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한 '2014 KEPIC-Week'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라는 주제로 정부, 국내외 전력산업계 인사, 관련 전문 인력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발표 및 워크숍 등 기획세션이 일정별로 진행되며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기술 분야별 최신 주요 제·개정 현황과 그 기술적 배경 등이 소개됐으며, KEPIC의 적용확대 및 발전 방안을 도모함으로써 KEPIC의 국제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다지는 장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합동강연에서는 한진 이종훈 前 사장 (왼쪽)과 동서발전 장주옥 사장이 특별강연을 펼쳐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왼쪽부터) 합동워크숍에서는 ▲2014 KEPIC의 현황과 전망(김종해, 대한전기협회 KEPIC처장) ▲미국 원자력 품질보증 시스템(Norman P. Moreau, ASME NQA Committee Vice Chairman) ▲Trends of Equipment Qualification(Robert Konnik, IEEE 383 chairman) 등에 대한 기초연설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품질분야(Q) ▲재료/용접(MW) ▲기술품질 ▲원자력기계(MIN) ▲전기/계측(E) ▲구조(S) ▲화재방호(FP) ▲발전기계 및 환경(MG) ▲원자력시설 HVAC & 공기정화 ▲비파괴(ME) ▲원자력(N) ▲전문분야(기획) 워크숍 등 11개 전문분야, 28개 세션에서 총 15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 기획 세션으로 ▲면진설계 ▲원전고성능 구조재료 ▲원전 공정/유출물 방사능 감시계통 세미나 ▲화력 KEPIC 적용(한국남동발전) ▲원전해체-국내의 원전 해체 현황 워크숍(한양대 원전 해체 안전연구센터) 등 공동워크숍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논문의 주제를 다양화해 학생/초보 엔지니어에서부터 전문가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고자 'Young Engineer & Student Sessin'도 별도로 기획해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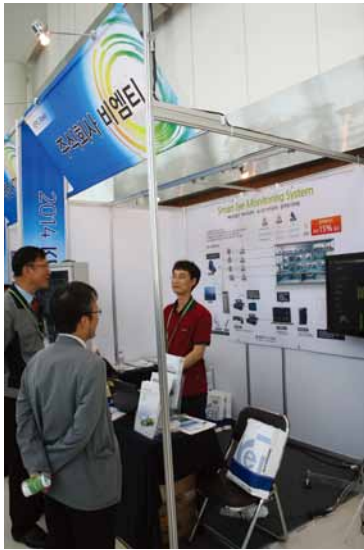
지난달 27일 진행된 합동강연에서는 ▲2014 KEPIC의 현황과 전망(김종해, 전기협회 KEPIC처장) ▲미국 원자력 품질보증 시스템(Norman P. Moreau, ASME NQA Committee Vice Chairman) ▲Trends of Equipment Qualification(Robert Konnik, IEEE 383 chairman) 등에 대한 기초연설이 진행됐다. 특히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발전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종훈 前 한진 사장이 '전력산업 발전자취와 기술기준 개발'에 대해 특별강연을 펼쳐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기협회 조환익 회장이 강릉에코파워 엄창준 사장(왼쪽)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전기협회 조환익 회장과 감사패를 받은 동서발전 장주옥 사장(왼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KEPIC-Week 행사에는 한수원, 두산중공업,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엠티, 부원비엠에스 등이 참여하는 전력산업전시회도 동시에 진행됐다.



KEPIC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전기술 이철우 처장 등 18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북도, 용현비엠(주), (주)프론틱스, (주)삼미전공, 청우물산, (주)비엠티, (주)부원비엠에스 등이 참여하는 전력산업전시회를 비롯, 산업시찰, 전력인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7일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KEPIC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전기술 이철우 처장, 한수원 이서원 차장, 한전 이육륜 선임연구원 등 18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강릉에코파워(주) 엄창준 사장이 공로패를, 한국동서발전(주) 장주옥 사장이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개막식 행사에서 전기협회 조환익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협회는 KEPIC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 확대에 힘쓰면서 전력산업 인프라 확장, 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전력산

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표준화 기반 구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면서, KEPIC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연백 원전산업정책관도 격려사를 통해 “세계가 치열한 기술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KEPIC의 역할은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기협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표준을



지난달 27일 진행된 전력인의 만남 시간에는 KEPIC-Week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참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우애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11개 전문분야에서 총 156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기획세션으로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개발·관리하고, 산업계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협회는 ‘KEPIC 6단계 사업의 중간 점검 및 수익 다각화’를 2014년도 추진목표로 정하고 기술선진화 촉진과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사용자 만족 실현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4 KEPIC-Week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자]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이철우	한국전력기술(주)	처장	김민기	한국남부발전(주)	차장
이서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장	박노철	두산중공업(주)	부장
이옥륜	한국전력공사	선임연구원	안종석	한국동서발전(주)	부장
김우성	재료연구소	선임연구원	고정호	한국중부발전(주)	차장
임남식	한국전력공사	차장	권용준	한전산업개발(주)	처장
임다두	한국남동발전(주)	부장	배재환	한국전력기술(주)	처장
조기호	한국서부발전(주)	차장	이강희	두산중공업(주)	부장
맹호진	한국수력원자력(주)	팀장	추동훈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차장
윤정태	한전KPS(주)	책임전문원	이재중	한전KPS(주)	부장

● 전기협회 장학회, 신규 임원 선임 및 하반기 장학금 지급

(재)대한전기협회 장학회(이사장 김무영)는 지난달 22일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에 대한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은 총 4,450만 원으로,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9개 대학과 한국해양대, 호남대, 강원대, 경성대 등 비수도권 16개 대학 재학생 총 25명에게 지급됐다.

한편, 전기협회 장학회는 지난달 22일 전기협회 4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사)에 대한 신규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송실대 김재철 교수, 대원전기 권세원 사장, 케이디파워 이범우 회장, 전기조합 이광섭 前 전무, 서울과학기술대 정재희 교수 등 5명이다. 아울러 올 5월 별세한 용성전기故 최성재 사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선임된 신규 임원은 서울대 문승일 교수, 성균관대 김철환 교수, 진우시스템 고재완 사장, 한수원 조정석 前 전무이사 등 4명이다. 김재철 교수, 정재희 교수는 유임됐다. 전기협회 장학회는 김무영 이사장을 비롯해 신규선임 된 6명의 이사 외에 옴니엘피에스 정용기 대표이사, 선도전기 전동준 대표이사(이상 현 이사), LS산전 이학성 고문, 정창모 공인회계사(이상 현 감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 기술기준처, 전기설비기술기준 브로슈어 제작·배포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브로슈어를 새롭게 제작, 9월 초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배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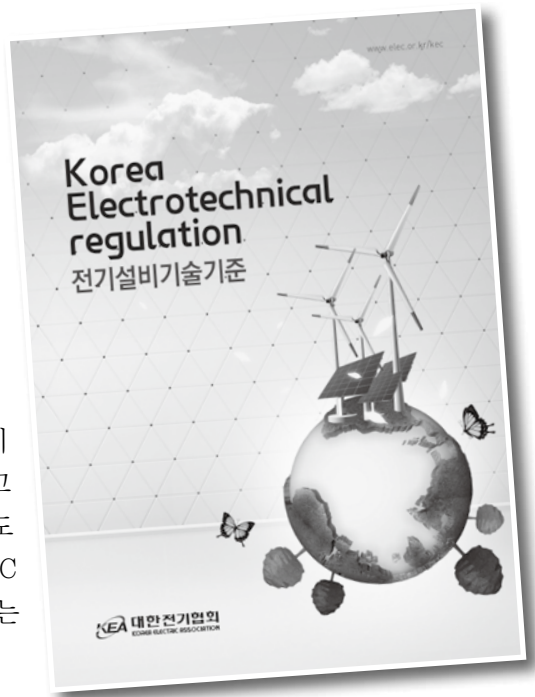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에서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있어 인체에 위하나 물체에 장해, 손상 또는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공급자나 전기사용자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협회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기술기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브로슈어에는 이러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정 의의, 원칙, 적용 범위, 제·개정절차,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의 구성 등 일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아울러 전기협회는 국제표준 및 해외선진규정을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한국전기규정(KEC)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정 필요성, 개념, 제정절차, 계획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브로슈어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적합성평가 등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관련한 내용들을 함축해 담고 있다.

또한, 브로슈어에는 최근 기공식을 통해 본격화된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에 대한 구축 목적 및 계획 등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기술기준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기술교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IEC 규격에 의한 전기설비설계가이드 등 기술기준처에서 발행하는 도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문의 : 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3393-7663)〉



● 산업부, 전력신기술 제98호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하나테크와 승리전력기술이 공동으로 신청한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기술)’을 전력신기술 제98호로 지정, 지난달 25일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택지 내 현장에서 SAF(Sorter&Arrayer&Filler) 장비를 이용해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서 퍼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기술이다. 아울러 SAF 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해 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해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www.elec.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돼 있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1995년 전력기술관리법이 입법화되면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인증제도이며, 전기협회가 1997년부터 인증을 위한 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EA